



투기성 치부의 후유증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A: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상 북학주택 신정을 하여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좋은 층에 당첨이 되었다. 당장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1억 원 정도는 간단히 남길 수 있을 거란다. 15년 직장생활하며 뼈 빠지게 저축하여 모은 돈 전부 합쳐도 1억이 안될 것 같은데...

B: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A가 건국대 철학과 교수 있는 돈 없는 돈 끝어대 주상북학 신정을 하더니, 로얄 층에 하나가 당첨되었다. 갑자기 살맛이 없어 버렸다.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모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디 큰 거 한탕 할 궁리나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투기성의 치부가 남기는 결과... 그 결과는 그러한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의 삶도, 그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망치고 만다. 모든 사람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한탕주의가 판치게 만든다. 돈을 노린 극악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월인도 결국 여기에 있다. 거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자꾸 벌게 되어 있는 구조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낳아 집중시킨다. 어디로 보아도 부동산 투기 등의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 겉으로는 방법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가만 살펴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주장에 가깝다. 그런 규제를 확대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부동산 입자들의 협박(?)까지 나온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내가 어디 이상한 세상에 와 살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돈 번 사람의 삶도 망친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힙합에 피어난 연꽃 내음



가수 엠시 스나이퍼의 2집 '초행'에서 힙합과 불교가 만났다. 사찰음악과 붓다의 자비로움을 일깨우는 음악이 포함된 앨범은 이미 엠넷(m.net) 가요 차트 10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있다. 나이 많은 종교로만 인식돼 온 불교가 젊은 층에 다가서는 방법으로 연에게 진출한 것일 수 있다. 엠시 스나이퍼의 팬클럽 카페를 보면 불교신자가 아니지만, 음악이 좋아 불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글이 있을 정도다.

장군수예

새만금 사업위해 개종, 웬말인가?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이 구성된 김제시 불교연합회가 새만금 방조제 문제와 관련 개종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불교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제시 불교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라면 삼보일배가 아닌 일보일배도 곁길할 수 있다"며 "불교계가 우리의 버림을 계속 저버린다면 개종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보여준 일련의 외교적 행보에 대하여 굴욕외교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일본 방문 후에는 다시 '등신외교'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는 일본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한 후유증이며, 국내의 비난 여론은 우리 국민들의 대일 감정과 일본의 교묘한 상황 연출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일 정상 외교에 일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마도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과거사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본 틀을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위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변 4강 외교의 핵심과제로 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외교 행위가 국민 감정의 카타르시스 행위가 아닐진대, 차라리 과거는 그냥 존재하는 역사로 두고 새로운 미래의 개혁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것



불자 세상보기

윤세현

인천전문대 교수

외교술과 불퇴법

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하나의 실리적인 비전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외교관 여차피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부재는 총론적 당위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였음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현충일에 이루어진 일본 방문, 그

리고 TV 화면을 통하여 전달된 일본 국왕과의 만찬 광경은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린 국민들의 대일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미숙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 당사국의 대통령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의 외교적 결례이며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일 궤도 위에서 최근 북한 때러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한 회담 후의 공동성명에서 '추가적 조

치'와 '더욱 강경한 조치'라는 이전의 표현보다는 온건한 '북한이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으로 정리된 외교적 성과도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된 약자들이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 또한 비껴간 과거사에 대한 국내 여론의 역풍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도진에게 미리 배포한 일본 국회에서의 연설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게 했다.

필자는 대통령에게 외교나 국방은 내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7불퇴법을 알려주고 싶다. 성공적인 내치가 외교역량의 기반이요,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가르침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실성을 갖는 혜안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일진왜란 직전의 조선 조정의 터무니없는 대응상황과 오늘을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를 간곡히 권하고 싶다. 또한 타성과 전통에 자신의 논거를 의존하고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고당적인 의리와 명분으로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좌절된 후 민족이 겪은 두 번의 대 참화를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를 읽고 / 붓다뉴스 게시판

군법사 수적열세, 종교정책 맨 소외

김태운(서울 관악구 신림동)

후세인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에 한국도 서희부대를 파견하는 등 일조를 하고 있다. 멀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종교만큼 의지처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파견 장병들의 수만큼이나 종교도 다양한 텐데, 어찌 군 목사 1명만 파견한 것일까? 모두 개신교로 개종하라는 국방부의 취지인가?

방송 불교비하 여전, 적극 대응해야

ID: 'sosa' (붓다뉴스 자유게시판 중)

얼마 전 KBS 2TV '폭소클럽'에서 개그맨 배동성씨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 목탁이라며 불교를 비하해 웃음을 유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악기를 배웠으며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를 부르더군요. 불교를 하찮은 말장난의 소재로 삼다니 분개할 노릇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불교비하 발언이 나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수수방관할게 아니라, 공개사과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슈거리와 기획기사 절실

김영원(서울시 동작구 상동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가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사의 질적 만족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슈거리와 기획을 많이 다뤄 여러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불교신문이 교계의 소식을 다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점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의 현황과 모습을 조망하는 불교적 색채를 띤 신문으로 모습을 탈바꿈했으면 한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일반인들도 현대불교 신문을 통해 유익한 기사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다.

사회문제 외면 말고 자비 베풀시다

배준호(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얼마 전 한 미혼모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하기 위해 불가에 있는 복지단체를 찾아다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결국 그 미혼모는 그런 시설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가톨릭과 기독교 시설에서 개종을 하면 그녀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미혼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해야 할 불가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겨누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하기를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불교계가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으면 한다.

바르고 명확한 내용담은 교재 시급

한상호(서울 용산구 청파동)

나는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의 종교 즉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초, 중, 고를 거치면서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이 전부다. 아마도 나와 반대로 불교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 일거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불교 관련 내용이 잘못돼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설사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명확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독자투고 뉴욕에 한국불교가 있는가?

미국에서 불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불교도 미국에서 인기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착각이다. 현재 뉴욕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최대 불교잡지인 <트라이스타일>은 일본과 남방불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쓴다.

내가 있는 뉴욕에는 뉴욕 조계사, 정명사, 한미선원, 불광사, 도선사 등 10곳이 조금 넘는 한국 사찰이 있다. 그러나 백만장자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주택을 개조한 일종의 '포교당' 스타일의 절이다. 불광사와 한미선원을 제외하고는 10명 남짓한 노신도 만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한국 사찰의 현주소다.

이런 한국스님들의 마케팅 실패다. 한국 사람이 뉴욕에 이

한국사찰 10곳 남짓, 시설·인력 미흡

체제정립 실패와 주입식 포교 문제

민와서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에 흡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이며, '동포 만나기'나 언어를 못해 주류사회에 끼지 못하고 돈버느라 고단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는 '집합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스님들은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이미 많은 사찰이 있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만 절을 지으려고 한다. 또한 미국에 맞는 불교 체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한국불교만의 특징을 각인시키지도 못한 채 무조건 따르려는 식의 포교를 하고 있다.

단순히 <천수경>과 <연아심경>을 위주로 108배를 하는 법회가 아닌, 무언가를 남겨주는 법회를 마련한다면 미국 내 젊은 한인들과 미국인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ID: '뉴욕',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출신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대실 박사팀)이 황삼 EX를 개발하였습니다

항암효과 산삼보다 70배 높아

KBS(9.30 뉴스)

산삼 성분 만든다(2003. 04. 09)

皇參 황삼

특허출원 제 2000-59857호

산삼은 잊으십시오. 이젠, 황삼입니다!

천단 유전공학 및 효소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탄생시킨 황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과학기술이 이루어낸 생명공학의 쾌거입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 황삼과 함께 건강 백세의 꿈을 이루십시오.

- 산삼능가치는 항암효과 "황삼 EX개발"(매일경제 3월 27일)
- 산삼능가치는 항암물질 개발(한국경제 3월 27일)
- 항암효과 "황삼 EX개발"(한국일보 4월 8일)
- 산삼능가 항암효과물질 "황삼 EX개발"(연남뉴스 3월 27일)

산삼과 황삼 진세노사이드 비교
Rb.(13배), Rg.(16배), Rc(23배)

수술 전후 환자분 ◆ 원기회복
수험생 노약자 ◆ 직장인 스트레스 받는다
면역강화가 필요하신분 ◆ 건강 장수를 누리고 싶은분 ◆ 전화주시면 자재이 설명드립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ILDONG (02)455-6944(代) 제조원 : 일동제약 식품사업부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양토저적계산'입니다.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실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만수읍 소룡리 156)

자매품 함박재 통종소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ml x 60포, 132,000원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인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쾰른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0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2274-2191